



가정통신문

부서담당: (중등) 창의체험부
전화번호: TEL: 021) 6493-9607
FAX: 021) 6493-9600
홈페이지: <http://skoschool.com>

中國 上海市 閔行區 華漕鎮 聯友路 355號 (郵)201107

제575돌 한글날 기념, 학생 작품집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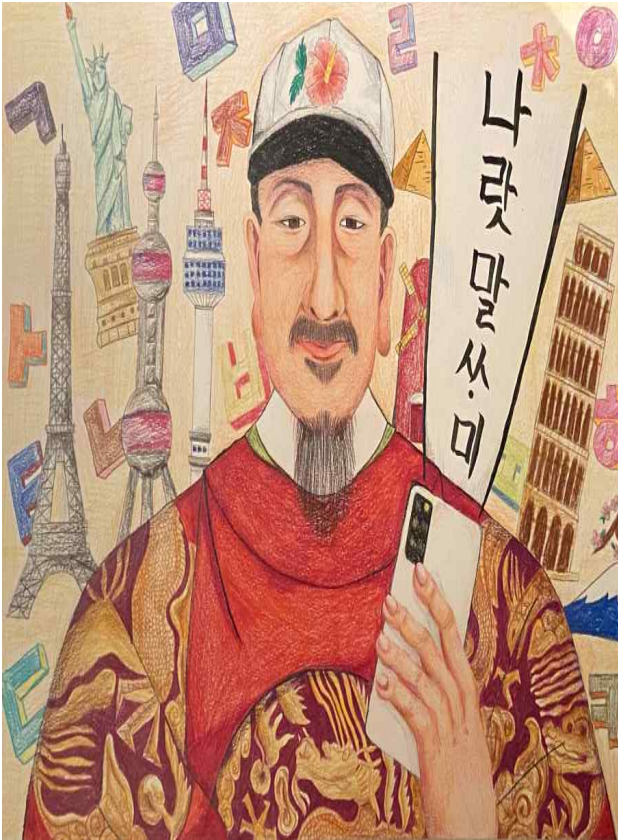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교의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는 10월 9일은 제575돌을 맞은 한글날로써 본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2021. 新조선어학회>를 조직하였습니다. <2021. 新조선어학회>는 일제강점기에 한글을 지키고자 노력하신 조선어학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현 시대에서의 한글의 위상과 한글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 형태로 표현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연휴를 앞두고 학생들이 제작한 한글날 및 한글에 관한 카드뉴스, 포스터, 시 등 다양한 학생 작품들을 보내드리니 연휴동안 잘 살펴보시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1. 新조선어학회 명단>

작품유형	학년	이름	작품유형	학년	이름
그림	8	주희진	포스터	7	서은희
	9	손윤민		8	강신애
	10	박소연		9	이지현
시	11	송승호		11	이도빈
카드뉴스	10	정승욱		11	최영원
	11	임나현		11	홍희서
	11	오수아		11	고재원
	11	윤정원		11	이지현
	11	한주영		11	황수현

1. 그림 &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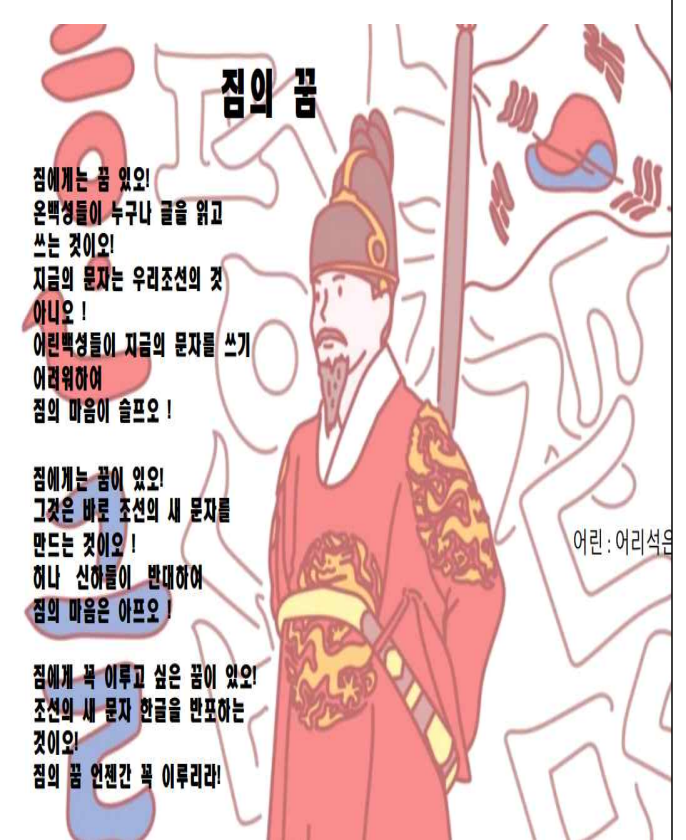
▷ 8학년 주희진: 세계속의 한글



▷ 9학년 손윤민: 간판에 새겨진 순우리말



▷ 10학년 박소연: 한글은 우리 민족의 정신



▷ 11학년 송승호: 세종이 되어 그 당시 상황을 시로 표현하기

2. 카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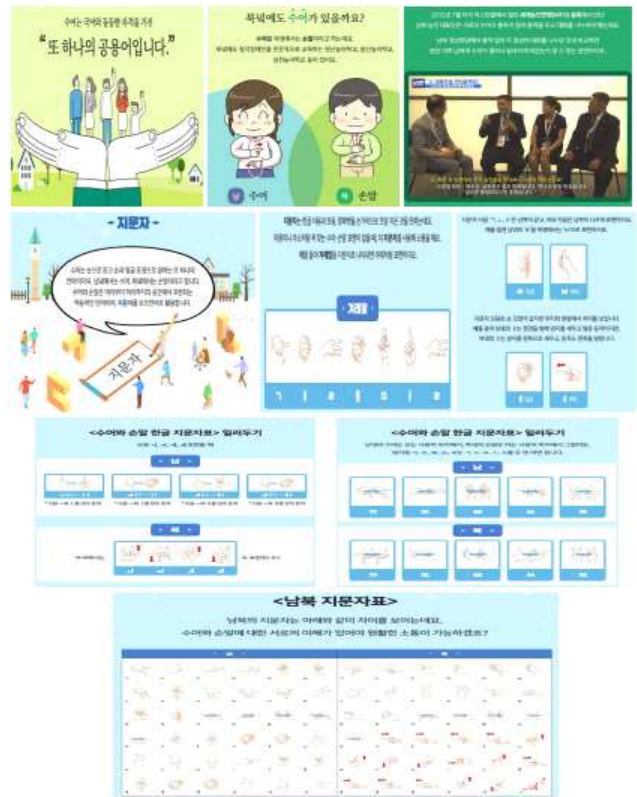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



▷ 10학년 정승욱: 세종어제훈민정음

남북한의 수어와 손말

110111 임나현



▷ 11학년 임나현: 남북한의 수어와 손말



▷ 11학년 오수아: 슬기로운 한글생활

위대한 훈민정음

110407 윤정원



▷ 11학년 윤정원: 위대한 훈민정음

3. 카드뉴스 & 포스터

1 남한과 북한의 한글날
원종현과 차이점 알아보기
남한과 북한의 한글날은 언제일까?
• 남한의 한글날은 10월 9일
• 북한의 한글날은 1월 1일

2 '한글날'이란?
한글날은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1948년 8월 15일 건국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 훈민정음 창제를 통해 우리 민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해준 공로로, 1926년 1월 1일 '한글날'로 지정되었다.

3 '한글'의 의미
'한글'은 '하나 밖에 없는 글, 으뜸가는 글'이라고 한다.

4 처음 제정된 '한글날'은?
1926년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어학회에서는 조선 왕조실록에 나오는 훈민정음 발원 설화(왕을 신하들이 한글날로 정했다, 이렇듯 한글날이 아닌 '가갸날'이었다.)
처음 제정된 '한글날'은 '가갸날'이라고 하였다.

5 남한의 '한글날'
-제정: 1948년 10월 9일
-종교개혁 50주년 기념
-1948년 10월 9일 발원설화(한글날)
북한의 '조선글날'
-제정: 1948년 1월 1일
-종교개혁 50주년 기념
-1948년 1월 1일 발원설화(조선글날)

6 결론! 남한과 북한의 '한글날'
남한과 북한의 한글날은 다르다.
남한의 훈민정음 발원설화를 바탕으로 한글날, 북한은 훈민정음 발원설화를 바탕으로 조선글날을 기념한다.
한글을 사랑합니다!

7 한글날을 소중히 여기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 니다
한글날 10월 9일

▷ 11학년 한주영: 남·북한은 왜 '한글날'이 다를까?

한글날

▷ 7학년 서은희: 한글꽃이 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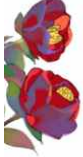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그 뜻이 서로 통하지 않아
어려서부터 배워서 제 뜻을 펴고 싶어도 펴지 못한다
내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날로 편하게 쓰기를 바라노라
80201 강신애

▷ 8학년 강신애: 한글날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키자

▷ 9학년 이지현: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키자

아름다운
한글



				아	름	다	운		순	우	리	말							
				달	보	드	예	:	알	달	하	고	부	드	르	다			
				꽃	바	람	:	꽃	이	틸		무	렵	에	부	는	분	바	람
				안	아	미	로	:	당	은	것	이	그	곳	매	넉	치	도	죽
				도	박	이	:	한	견	같	이	혹	은	언	제	나			
				미	쁘	다	:	멜	음	성	이	있	다						
				그	린	나	캐	:	그	린	듯	이	아	름	다	운		할	개
				출	처	:	인	친	군	로	벌	캠	퍼	스	.	밀	마	미	포

▷ 11학년 이도빈: 우리가 사용하는 아름다운
우리 글자 한글

1940년 7월 대한민국 한글의 역사를 뒤로든 두 손자끼리 열었다.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 앞장선 것이다. 해례본의 정의의 서문에는 한글날은 9월 상강(上望)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는 곧 윤민정음보다 서기 9월 상순(上旬)이 되는 것을 뜻했다. 그러한 이유로 한글날은 도대체 무어일까를 생각해 보았다. 1945년부터 9월 상강의 마지막 날 9월 10일을 윤력으로 계산한 10월 9일에 한글날 기념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한글날이 기일이 되는 것이다.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Korean official, likely a member of the nobility or government, wearing a traditional red robe (jogori) and a black hat (gat). The official is holding a black object, possibly a fan or a book, in front of his chest. The background consists of vertical lines, suggesting a curtain or a wall. Large Korean characters are visible: '가' (ga) on the left and '마' (ma) on the right, which are part of the title '가마' (gama), meaning 'palace' or 'court'. The overall style is reminiscent of traditional Korean art, with bold lines and a limited color palette.

▷ 11학년 고재원: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

5. 포스터



▷ 11학년 이지현: 내안에 '한글' 있다.



▷ 11학년 황수현: 나랏말싸미